

카드수수료 간담회

금융위원장 모두말씀

2018. 1. 22.

금 융 위 원 회

보도를 위한 참고용으로 실제 발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

금융위원장 모두말씀 참고자료

1. 인사말씀

- ☐ 안녕하십니까.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임
- ☐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 소상공인단체 협회장님과 여신금융협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.
- ☐ 오늘 간담회는
 -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경제의 지속 성장과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는 점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고,
 - 다만, 이 과정에서 우리경제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
 -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마련하였음

2 최저임금 인상 관련 입장

- ☐ 우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정부의 기본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함
- ☐ 현재 우리경제는 소득 양극화 심화로 삶의 질이 저하되고 나아가 성장까지 제약하는 상황에 도달했음
 - ❶ 기업-가계, 고-저소득간 양극화 심화(특히, 저소득층 근로소득 부진이 양극화 주요인)
 - ❷ 소득 양극화는 소비 위축을 야기 → 성장에도 부담
 - ❸ OECD 최고 수준 저임금 근로자 비중 등으로 삶의 질도 취약
- 현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,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엄중한 상황임

□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❶양극화를 완화하고, ❷지속가능한 성장과 ❸3만불 시대에 걸맞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꼭 필요한 선결과제라고 생각함

❶ 우선, 저임금 근로자 소득확충을 통해 소득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,

❷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 소득 증가를 통해 다시 소비·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음

❸ 특히,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약 80%는 청년·여성·고령층으로 취약계층의 소득확충 통해 인간다운 삶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도 기여함

□ 최저임금 인상은 이처럼 소득중심 선순환 구조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의미 있는 결정임

3.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노력

□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소상공인 여러분들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

❶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(9.0%)과 사회보험료 등 상승분을 고용주에게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(3조원)을 차질없이 집행하고,

* '18년 최저임금 인상(16.4%) 중 지난 5년 평균 인상(7.4%)를 초과하는 인상분(9.0%)과 사회보험료 등 노무비용 상승분에 대해 고용주 직접 지원

❷ 영세상인 등의 고용인력에 대해 고용보험,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보험료 등을 경감하는 사회보험료 경감도 추진(1조원)

* 10인미만 사업체, 月19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보험·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(기존가입자) 40% (신규가입자) 80~90%

** 30인미만 사업체,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& 건보 신규가입자 건보료 50% 지원

- ③ 그 밖에 상가임대차보호법 강화*, 청탁금지법 보완** 등
영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임

*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9→5% 인하, 법 적용 대상인 환산보증금 50%이상 상향

** 농수산물 선물 별도상한(10만원) 및 화훼·조화 경조사 별도상한(10만원) 신설

- 금융위 차원에서도 범정부 노력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금융비용
절감 등을 위한 대책을 지속 추진중

-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낮은 금리·보증료를 적용
하는 상생대출 프로그램(1.2조원 규모)을 출시하였으며(‘18.1월)
- 향후 기업은행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들을 지원
하기 위한 초저금리의 대출상품도 마련할 계획임(2월초)

< 참고 >

* 소상공인 상생대출(1.2일 기출시, 금리 1.3%p, 보증료 1.0%p 인하, 1.2조원)
초저금리 대출(신용등급에 상관없이 1.95% 수준의 금리 일괄 적용, 1조원)

4.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

- 오늘 간담회에서는 특히, 카드수수료와 관련하여 정부의 정책
노력을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자 함
- 우선 지난 7월,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부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
- 일반가맹점 수수료율(2% 수준) 보다 낮은 우대수수료율이
적용되는 영세·중소가맹점 범위를 크게 확대*하였음

* 영세가맹점(수수료율 0.8%) : 연 매출액 2억 이하 → 3억 이하
중소가맹점(수수료율 1.3%) : 연 매출액 3억 이하 → 5억 이하

- 동 조치로 약 46만개 가맹점들이 더 낮은 우대수수료를 적용 받음에 따라 가맹점당 연간 약 80만원의 카드수수료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었으며 (총 3,500억원 절감 효과)

-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가맹점 비중도 전체의 87%로 크게 확대

□ 또한, 지난 1.18일 「소상공인·영세중소기업 보완대책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

- 아르바이트 고용이 많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이 큰 소매 업종 (예 : 편의점, 슈퍼마켓, 제과점, 약국 등)의 부담 경감을 위해

-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뱅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'18.7월 시행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임

*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뱅서비스 가격 체계의 변화(정액제 → 정률제) 반영

- 동 제도개선시 소액결제업종 약 10만개 가맹점에 평균 0.3%p (약 200~300만원)의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함

□ 영세·중소가맹점 확대와 소액결제업종 수수료 인하 방안에 따라 소매 자영업자분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 될 것으로 기대함

- 또한, 향후에는 카드사의 원가 재산정을 통해 우대수수료를 조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편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하여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을 지속 경감해 나갈 계획임('19.1월 시행)

5. 당부 말씀

- 최저임금 인상이 여러분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만큼,
 -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, 저금리 대출 상품 등 정부의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
 - 또한,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소득주도 성장의 모범 사례의 주인공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

<모범사례 : 아파트 경비원 상생협력 사례>

- (i) 구로 천왕연지타운2단지 : 경비원(8명)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, 입주자가 경비원 급여인상분을 모두 부담
 - * 경비원 임금 : ('17년) 177만원 → ('18년) 206만원(인상분 29만원 → 주민부담)
- (ii) 강북 래미안수유 : 경비원(6명)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며, 휴게시간 조정없이 급여인상*
 - * 경비원 임금 : ('17년) 155만원 → ('18년) 180만원
- (iii) 광주 북구 : 광주 북구 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아파트 6곳과 경비노동자 처우개선 협약 체결 → 지속 고용 보장

- 카드업계도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
 - 카드산업은 소비자와 가맹점의 거래를 중계하는 금융업인 만큼,
 - 소비자의 소비여력 제고(최저임금 인상 → 소득주도 성장)와 가맹점의 경영여건 개선(카드수수료 등 경제부담 완화) 없이는 생태계 유지와 지속적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
- 금융위도 “소득주도 성장”과 “국민의 삶의 질”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추가·보완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